연중 제29주일 강론(2019년 10월 2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날 왕이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하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왕은 그 농부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왕의 약속을 들은 농부는 다음날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부터 일어나서 자기의 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뛰기도 했습니다. 뛰다 지치면 걷고, 또 걷다가 다시 뛰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얻게 될 땅이 적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걷고 뛰었습니다. 아침 먹을 생각도 잊었습니다. 점심도 건너뛰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걷습니다.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죠.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라 걷습니다. 오직 한가지 생각만 합니다. ‘한 발자국 더 걸으면 그만큼 내 땅이 넓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몸도 돌보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을 바라보며 입에서 단내가 나고 가물가물 현기증이 나는데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태양이 서산에 넘어가는 순간 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드디어 왕 앞에 와서는 왕의 약속을 들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농부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왕 앞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싱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인생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꿈을 쫓아서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조건 죽어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엉뚱한 것만 쫓다가 인생 다 지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하는 이유는 다 부질없는 욕망과 욕심, 고집, 집착 등이 마음 속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질없는 미련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느 농부의 이야기처럼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늘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 학년이 되면 그저 예쁜 짝꿍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이 예쁜 짝궁을 만나게 되면 일년이 기분이 좋지만, 미운 짝꿍을 만나면 일년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쁜 짝궁을 만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여자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좋아했다가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날까봐, 그러면 나중에 후회 할까봐 여자 친구와 깊게 사귀지도 못했었습니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된 거죠.

사제가 되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나와 결혼할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결혼을 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못한 겁니다. 사제가 되면서 현실을 깨닫고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한마디로 꿈 깬 겁니다. 우리는 늘 부질없는 꿈을 꾸며 살아 갑니다. 결론은 부질없는 꿈에서 깨어나야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헛된 꿈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해야 이루어 지는 겁니다.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비천한 신분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복음의 비유 이야기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의 힘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로 살고 있고, 또 늘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삶이 늘 평화롭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삶이 어지럽고, 평화가 없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화나고 짜증나고, 걱정이 많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를 소홀이 하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신자 분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직 유명한 무당이었던 김모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처음에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 중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무당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가족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고, 귀신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귀신의 목소리나 행적을 듣거나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귀신을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 김모씨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받은 귀신은 무속 신들 중에서 제법 급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씨는 무당 중에서도 좀 직급이 높은 무당이 되었고, 같은 무당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너무 힘들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무당들은 보통 말년이 참혹합니다. 대부분 목을 메고 자살을 하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제사를 지내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몇 번 성당에 갔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당에서 기도하던 어릴적 기억이 나고, 성당이 너무 가고 싶어서, 무당 직분을 어렵게 버리고 탈출을 해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괴롭히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는데 내가 왜 싸우고 있지?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기도의 힘으로 마귀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보이던 귀신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아니까요. 저희 집안 대부분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봐야, 세상이 바뀌나, 인생이 바뀌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 하면서 마음의 평화, 삶의 축복이 가득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